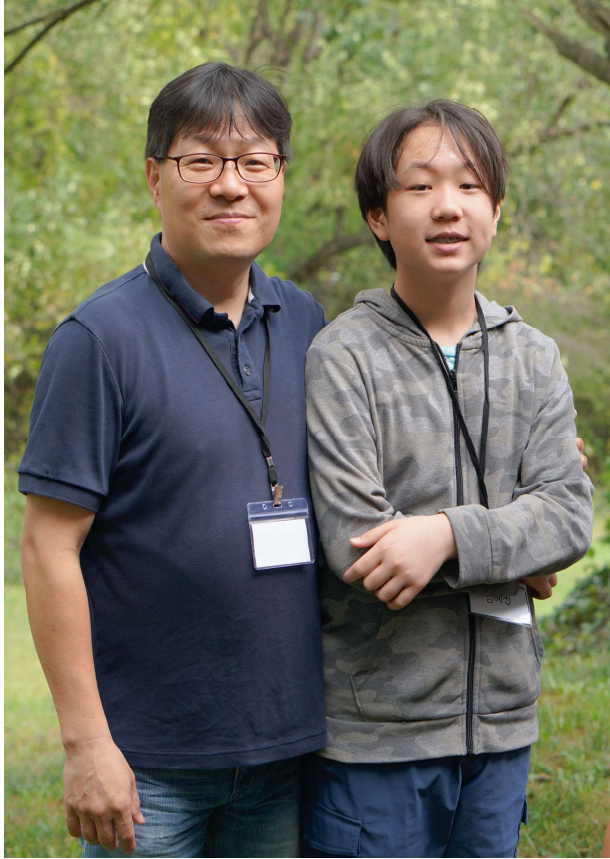


# Letter from Blacksburg



2024년 9월 야외예배 - 둘째 예섭이와

## 길목에서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와 블랙스버그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곳을 ‘광야’ 라고 불렀고, 어떤 분들은 이곳을 ‘고향’이라고 불렀고, 어떤 분들은 이곳을 ‘숨 막히게 답답한 곳’이라 불렀으며,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하늘과 더 가까이 살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곳, 블랙스버그와 블랙스버그 한인교회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추억과 기억이 새겨진 곳입니까?

저희 가정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지금 대학생인 큰아이는 두 살이었고,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한 신학교 하우징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길목’이라는 식당에 몇 번 갔었는데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고, 늘 많은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 식당의 이름 ‘길목’이 저에게는 더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길목은 길이 구부러지거나 좁아지는 곳으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며,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나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을 가리키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좁은 지점이며, 중요한 많은 흐름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길목’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곳이며, 폭이 좁아져서 여기에서는 더 가까이 스쳐 지나갑니다. 각자의 길을 가다가 이 길목,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서 만나 땀을 식히며 물 한 모금 마시며 쉬었다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눈물짓고 다음 발걸음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어쩌다 여기까지 떠밀려왔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가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인생 2막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며, 이 길목에 자리 잡고 터 잡고 살고 계신 분도 계시며, 여기를 발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길목은 많은 사람이 오가며 서로의 거리가 잠시 가까워지는 ‘길목’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이 ‘길목’으로 보내셨습니다. 미국 들어올 땐 몇 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고비를 지나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저희 가정을 이 길목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목사와 사모인 저희가 여기 와서 할 일은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있었어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이 길목에 있게 하셨습니다.

...Continued on pg. 2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길목’으로 보내셨 습니다. 이 길목을 지나가신 분들도, 지금 이 길 목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이 길목에 오실 분들 도 하나님이 굳이 여기로 인도하신 데에는 이유 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의 유 무와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을 가지고 계시며,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 래서 그분이 나를 담금질하시고 나면 내가 순수 한 금처럼 될 것입니다.” (욥기 23:10)**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길을 마음으로 계 획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 의 인도와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잠언 16:9)**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싫 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 인 사람에게는 이 말이 곧 ‘보호’와 ‘인도’와 ‘함 께하심’을 의미하는 축복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알고 나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 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 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가고, 너를 도와주고, 나 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줄 것이 다.” (이사야 41:10)**

**“네가 큰 강과 바다를 걸어서 건너야 할 때에도 양쪽에 멈추어 쌓여 벽을 이루고 있는 그 물 마저도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그 물 한 방울도 젖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믿음을 지 키느라 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도 너의 옷은 그 을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의 살갓의 털 하 나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2)**

이런 믿음이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에 위 로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이 어둡고 칙칙하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 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발로 디뎌야 할지, 어디 를 딛지 말아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말 씀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과 빛이 되 십니다. (시편 119:105) 그래도 넘어질 수 있고 헛 디딜 수도 있겠죠.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일 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걸음을 내 디딜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시편 37:23-24)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길목,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를 쉬게 하시고, 물 한 모금 마시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앞을 보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 님의 일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사 랑하는 가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길목,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를 지나 세계 각지로 흩어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인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 여기 길목, 블랙스버 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곳 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길목,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지금 머물고 계신 여러분, 여기에서 다음을 위한 준비를 잘하 십시오. 여기선 앉아 쉴 곳이 있지만, 앞으로의 여정에는 잠시간 쉴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셨다면, 서로 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길목,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를 지나간, 머물 고 있는 우리 모두, 내 뒤에 이곳에 도착할, 이곳 을 지나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 해 주십시오. 여기에 도착하고, 이곳을 지나갈 사람들이 앓을 자리,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잠 시 머물 거쳐, 맑은 물, 힘을 회복시키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 으시다면, 재정적인 후원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근처를 지나가실 때, 이 길 목에 한 번 들러 주십시오.

2025년 1월

임동진 목사, 전예영 사모 드림.



### 헌금/재정지원

<https://kbcbs.us/paypal-헌금>

미국 교회 주소: 550 North Main Street  
Blacksburg, VA 24060  
Mailing address: PO Box 10185  
Blacksburg, VA 24062

### 교회 YouTube channel

@koreanbaptistchurchofblack3581 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 Current & Upcoming Events

1/21: Virginia Tech, Radford 개강  
2/14-16: 버지니아 청년 연합 수련회

### 봄 형제 성경공부

기간: 1/21 ~ 4/29 매주 화요일  
시간: 20:00~22:00 (미 동부시간 기준)  
모임 장소: Online으로 진행  
교재: 미국 개혁 교단의 Coffee 시리즈  
문의: 임동진 목사  
(kbcbs.pastor@gmail.com)

### 기도제목

-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혼란, 재해, 사회적 갈등이 공의와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소서
- 운영위원들이 지혜와 기도로 섬기도록 이끄소서
- 새해와 새 학기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과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평안을 주소서
- 블랙스버그 인근 지역과 캠퍼스들의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 북한과 북한 지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 봄 리브가 자매 성경공부

기간: 1/21 ~ 4/29 매주 목요일/금요일  
시간 / 장소 : 추후 공지  
교재: 미국 개혁 교단의 Coffee 시리즈  
문의: 임동진 목사  
(kbcbs.pastor@gmail.com)



2024년 9월 야외예배에서, 레마 (Rhema) 청년부